

고전소설의 인물 비평 교육 연구 서설*

—인물 비평의 개념, 위상, 방법—

이상일**

<차 례>

- I. 머리말
- II. 소설의 인물 이해와 인물 비평
- III. 인물 비평의 방법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표는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학습 독자가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수행으로서 인물 비평의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¹⁾ 학습독자가 소설을 읽고 등장인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

* 이 논문은 2012년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제50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1. 4. 21~22)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의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leesay74@empal.com)

1) 김대행은 언어의 본질과 성격에 주목하여 국어교육의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교육 내용 중에서도 특히 수행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수행이 ‘과제’로서의 성격을 지닌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활동의 대상으로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하는 실천적 국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연구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연구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설득력 있

법적 활동으로서 ‘인물 비평’의 개념, 위상, 방식을 탐구한다.

소설에서 인물은 사건의 행위자로서 작중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곧 소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요소이다. “어떤 작품의 기본적인 패턴을 밝혀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 작품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는 점을 물어보는 것(Brooks&Warren, 1960)”이라는 점에서 인물은 소설을 구성하는 사물적 요소를 넘어 소설의 구조적 요소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독자가 소설을 읽고 가장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작중 인물이다.²⁾ 그래서 소설 교육의 영역에서도 인물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다.³⁾

소설의 인물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작품의 생산, 즉 창작 측면에서 인물 형상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는 작중 인물이 창조되는 과정과 방식, 그리고 한 인물의 형상을 이루는 서사적 기법이나 서술 요소 등을 작품 전체 서사구조와의 연계 속에서 살필 수 있어서 대상 인물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소설 교육 연구에서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인물 형상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 둘째, 학습독자의 인물 이해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대행(2002a), 김대행(2002b), 김대행(2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윌리엄 가쓰는 작중 인물을 소설 속 모든 요소들이 근거를 두어야 하는 제1차적 실체라고 하면서 소설에 나타나는 건물, 옷차림, 대화, 먹을 거리, 감정, 제스처, 눈오는 저녁, 얼굴 등 대부분의 요소는 읽기가 무섭게 사라져 버리는 데 비해 작중인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조남현, 1982 : 133-134). 일반적으로 소설 독서는 언어 기호를 통해서 사건을 추적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 언어 기호는 글을 읽는 순간 의미만을 전달하고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건의 줄거리만 남게 되는데 이 줄거리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희미해지고, 마지막까지 독자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작중 인물이다(홍성암, 1999 : 124-125).
- 3)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도 인물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호)에 따르면, 국어과의 모든 내용 영역에서 ‘인물’에 관한 성취기준은 총 139개 성취기준 중에서 1학년에서 8학년까지 14개 항목에 이른다.
- 4)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경순(1995), 이은주(2010), 선주원(2004), 전한성(2011), 홍지연(2005), 서유경(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다. 이는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 방법, 실천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서, 작품에 대한 객관적, 보편적인 해석보다는 학습 독자가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소설 작품과 인물에 대한 결과적 ‘앎’보다 인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더 중시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학습독자가 인물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의 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나 해석은 기본적으로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 사고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가시적 활동을 교육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나 말하기 등의 가시적 표현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설의 인물에 대한 위의 세 가지 교육적 접근 방향 중에서 본 연구는 학습독자의 인물 이해 과정과 그 언어적 표현 방법에 주목한다. 새삼스럽게 왜 ‘인물 이해’를 논하는 것이냐고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그간의 문학 교육, 소설 교육이 주로 작품의 이해와 감상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다,⁵⁾ 소설 교육에서 인물은 이미 중요한 내용 요소로 정착했기 때문에 인물 이해라는 화제가 그리 새롭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인물에 대한 교육적 기획과 실천은 텍스트 속에서 행위자로서의 인물이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과 기법, 즉 인물 형상화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정신 활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기존 소설 교육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제재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 중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들을 지식으로 구조화하여 학습시키거나, 그러한 지식과 관련되는 항목들을 텍스트 안팎에서 찾아 확인하는 활동 위주였다.

5)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면, 6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학 교육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 내용으로 표방하였다. 문학 영역에서 창작 교육은 4차 교육과정부터 진행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 4차 교육과정부터 창작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창작은 전문 작가의 활동으로만 인식되어 교육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 교육은 독자의 작품 수용이라는 문학 현상이 아닌, 작품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보편적 지식으로 변환하여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이처럼 인물 형상화 방식에 골몰하거나 지식 확인 중심으로 실천되어 온 소설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이해와 감상 능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독자가 소설의 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으로서 ‘인물 비평’을 제안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⁷⁾ 본 연구는 학습독자의 텍스트 이해 메커니즘을 다룬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논의에 바탕을 두며, 학습독자 개인의 다양한 텍스트 해석 과정과 결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의 문학관을 따른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고전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임을 밝혀 둔다.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판소리계 소설이 기존의 고전소설 교육에서 교육적 체제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은 1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까지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온 ‘교과서의 단골’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고 연구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에는 서로 다른 특질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독자가 작중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가능하고, 판소리계 소설이 지닌 대중적 인기와 적층성으로 인해 동일한 인물이라도 이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고전소설 갈래에 비해 인물의 다양한 국면을 해석해 내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인물 이해와 인물 비평은,

6) 학습 독자의 문학 해석과 감상이라는 비중 있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로는 양정실(2006), 조하연(2010)이 있으나, 이러한 성과들이 아직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에 까지 파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소설 교육, 문학 교육에서 비평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김성진(2004)를 참고할 수 있다. 김성진은 비평을 그 장르적 성격보다는 활동적 성격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내용을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평 활동’이라는 용어로 정립하였다.

소설의 세부 갈래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소설의 인물 이해를 위한 보편적 활용 가능성을 지향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용어의 개념 범주를 확실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이 글에서 제안하는 ‘인물 비평’은 문학 비평이라는 상위 장르에 속하는 하위 장르로서의 ‘인물 비평’ 쓰기 교육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이해’를 목표로 하는 소설 읽기 교육을 염두에 두었음을 밝혀 둔다. 여기서 ‘인물 이해’란, 특정 작품의 작중 인물에 대한 국문학적 연구 성과를 ‘안다’는 의미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학습독자가 일반적인 문학적 반응의 구조에 기대어 작품 속 인물을 수용하는 정신 작용으로서, 좀 더 넓게는 그러한 정신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적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II. 소설의 인물 이해와 인물 비평

학습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재구성은 작가의 창작과는 구별되는, 현상학이나 수용미학적 의미에서, 독자에 의한 재구성으로서,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여 작품화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독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소설의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다의적 상수(常數)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개별 독자나 비평 집단에 의해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는 가변 요소로서의 의미가 크다.⁹⁾

8) 여기서 작품화란 개별 독자들 간의 상이한 텍스트 이해를 염두해 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마르크스 주의, 구조주의, 정신분석학 등 예술 작품에 대한 문예학적 이론들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텍스트’ 개념이 탄생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작품은 상대적으로 물질적이고, 기원과 유래를 가지고, 단혀 있는 개념인 데 비해, 텍스트는 과정적이며 독자에 따라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 구분과 자세한 내용은 R. Barthes(1973)을 참고할 것.

그러므로 소설 속에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의 의미와 독자가 형상화된 인물을 수용하는 활동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형상화된 인물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구성물로서, 이 구성물은 각 요소들이 점점 증대하는 통합력의 범주 속에 집합되는 나뭇가지 모양의 위계 구조를 가진,¹⁰⁾ 이해의 대상이다. 반면, 인물 수용 활동은 독자가 소설을 읽고 인물을 이해해 가는 정신 활동이다. 전자가 정적·화정적·결과중심적이라면 후자는 동적·유동적·과정중심적이다.

소설의 인물 이해는 소설이라는 문학 갈래의 범주에서, 그리고 개별 작품의 인물에 대한 관점에서, 크게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소설이라는 문학 갈래의 층위에서 보면, 인물은 서사 문학으로서 소설이 가진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이때 인물은 소설의 다른 요소인 플롯이나 주제 등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요소로 간주되어 주로 개념적 지식의 국면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설계된다. 둘째, 인물 이해는 개별 소설 작품의 특정 인물을 이해하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홍부전>의 놀부나 <춘향전>의 춘향이 어떤 인물인지 학습독자가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하여 대상 인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관점에서 인물 교육은 인물이라는 하나의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설 속 특정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

9) 무카르조프스키는 예술 작품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한다. 첫째, 물질적인 기호로서의 작품이다. 무카르조프스키는 이를 예술품(Artefakt)이라고 부르면서 소쉬트의 기표(signifiant) 개념에 대응시킨다. 둘째 요소는 미적 대상으로서, 이는 수용자층의 집단 의식 속에 뿌리내린 작품의 의미를 뜻한다. 마지막 요소는 “지칭된 사실(실제)에 대한 관계”인데, 이는 예술 작품과 현실 사이에 어떤 특정한 지시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context) 사이의 연관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미적 대상이 다양한 사회 집단(이를테면 다양한 비평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의미 부여되는 가변 요소라고 한다면, 예술품은 이 모든 의미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다의적인 상수(常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 Zima(1996; 김태환 편역, 2000: 39)를 참조.

10) 텍스트 속에서 인물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구조주의 서사론의 논의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은 수용미학과 독자 반응 비평에서 출발하였지만, 학습자가 등장인물의 이해를 위해 인물 비평 활동을 하는 수행의 방법을 마련을 위한 이론적 기반은 구조주의 서사론이 제공한다.

로 사건, 배경, 갈등, 주제 등 소설 속의 모든 요소들이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질서화되는지를 탐색하는, 이른바 인물 중심 소설 읽기를 전제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물 이해는 한 편의 소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의 플롯과 모든 요소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통찰하여 인물이라는 행위자의 자질로 수렴하는,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복잡하고 종합적인 소설 수용 과정이다.

소설 갈래의 구성 요소로서 인물의 역할, 유형 등에 대한 개념 학습과 텍스트를 읽고 작중 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은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물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없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작중 인물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소설 작품을 읽고 작중 인물의 삶과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학습자가 인물에 대한 개념적 지식만을 아는 것은 쓸모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후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미흡했으므로 이 방향에서 좀더 실제적인 교육 방법과 절차의 구안이 필요하다.

인물 비평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은 ‘해석’의 개념이다. 독자의 문학 텍스트 이해나 해석의 과정은 텍스트 속에 내재된 여러 정보소들을 기반으로 ‘그렇듯하게¹¹⁾’ 정리하고 구조화하여 좀더 보편적 의미를 가진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결과물은 소통 가능한 의미의 결집체인 2차 텍스트(감상문, 비평문 등등)이다.¹²⁾ 이때 ‘보편적 의미로의 재구성’이라는 말은

11) 문학의 해석에서 ‘그렇듯함(또는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해석의 타당성과 직결되는데, 여기서 ‘그렇듯함’이라는 것은 해석의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2차 텍스트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학 텍스트의 해석에서 ‘그렇듯함(plausibility)’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S. Olsen(1978 ; 최상규 역, 2002)를, 이육사의 시 작품 해석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적 의미의 해석에 대한 논의로는 김정우(2002 : 215-226)을 참고할 수 있다.

12) 김정우(2002)에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해석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해석 활동’을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활동으로서의 해석(과정으로서의 해석)과 결과물로서의 해석을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이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정우, 2002 : 210-211).

독자가 작품을 읽고 받아들이는 의미나 감정들을 보다 명료한 언어로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질서한 사고의 덩어리로 남아있거나 단편적인 인식의 파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표류 상태라면, 최소한 그 학습독자가 작품을 읽고 있는 중이거나 방금 읽기를 끝낸 시점으로 국한할 때,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의 인물 이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독자의 무질서한 인식의 덩어리와 파편들을 엮어 낼 교육적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행은 소설 텍스트의 요소들을 인물 중심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며, 이를 집약하고 명료화해 내는 종합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행, 또는 활동을 본고에서는 인물 비평이라 명명한다. 인물 비평은 비평 주체인 학습독자가 작중 인물에 대한 해석 텍스트를 구성하는 생산적 활동으로서, 비평의 대상을 작중 인물로 초점화함으로써 인물 이해를 통한 작품의 심화된 이해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

본래 인물 비평이란, 그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한 개인(個人)의 인품(人品)이나 능력(能力) 및 행적(行蹟) 상(上)의 잘잘못을 평가(評價)하고 비판(批判)”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비평 대상이 되는 ‘개인’은 소설이나 영화 속의 허구적 인물이 아닌 역사적 실존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야 한문문화권에서의 비지전장(碑誌傳狀)류부터 오늘날의 평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문학 갈래는 ‘인물 비평’의 개념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문학은 각 세부 양식의 목적과 형식에 맞추어 대상 인물의 출생, 가계, 행적, 인간 관계, 업적 등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이념과 가치의식을 추출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입전 대상 인물이 생전에 남긴 행적과 업적, 일화는 물론 지인들이 남긴 기록 등 모든 관련 사실들을 활용하여 그 인물의 삶을 기술하고 포폄(褒貶)함으로써 한 인물의 총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 문학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소설의 등장인물과는 ‘사실과 허구’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전기 문학의 대상 인물은 역사상 특정한

시대를 살아간 실존 인물이지만, 소설의 인물은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형상화한 허구적 존재이다.¹³⁾ 또한 전기에서는 입전 인물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방대하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설에서는 특정 배경과 상황 하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행적, 언행 등을 중심으로 작가의 의도나 견해에 의해 그 정보가 제한되거나 변형된다.¹⁴⁾ 비록 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 대장편소설이라 할지라도 소설 속 인물은 대개 그 인물이 관여되는 사건을 중심으로만 파악된다.¹⁵⁾ 이처럼, 소설의 인물은 전기 문학에 비해 그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가 작가에 의해 제한되거나 변형되어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작중 인물 비평과 실존 인물 비평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요컨대 인물 비평은 비평 주체가 텍스트 속에 제한되고 변형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원천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설득력 있는 비평문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물 비평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13) 소설 속 인물이 허구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소설 속 인물이 언어를 통해 구체적 형상성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설의 인물이 지닌 또다른 결정적 자질로 언어적 허구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설이 지닌 언어적 허구성은 허구적 서술을 통해 실현된다. 언어논리적인 측면에서 허구적 문체의 특징은 ‘지시사’의 사용, 내적인 감정의 표현, 과거시제의 현재화 경향, 허구적 실재화의 경향, ‘문학적 표현’의 사용을 들 수 있다(이지은, 2004 : 46).
- 14)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전기 작가와 소설 작가의 저술 태도에서 출발한다. 전기 문학의 작가는 실존 인물의 삶과 관련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역사가의 태도를 지니지만, 소설가는 자신이 암시하고픈 가치에 맞게 허구적 사건을 창조하고 선택하여 재배열하는 창조적 태도를 지닌다(권영택, 1995 : 81).
- 15) 소설을 위시한 서사문학의 본질을 논하는 많은 이론가들은 서사문학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사건과 인물을 제시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인물에 대한 관점이 기능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으로 양분될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은 인물을 기능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인데, 서사 작품에서 잘 짜여진 줄거리는 하나의 체계를 갖춘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줄거리는 어떤 비극적 힘이나 역동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물의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능적 인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은 소설의 인물을 현실의 인간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인물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야기의 주체로서 플롯이나 스토리를 주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Ⅲ. 인물 비평의 방법

1. 학습자의 인물 비평에 나타난 문제점

인물 비평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의 인물 비평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살펴볼 학습자 인물 비평은 서울 지역 J여고 2학년 학습자가 <춘향전>(완판 84장본)의 주인공 춘향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¹⁶⁾

제시된 삽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는 월매의 태몽 부분으로, ‘낙포(洛浦)의 딸’ 춘향이 광한전에서 적송자(赤松子)를 만나 정회를 나누다 옥황상제에게 반도(蟠桃)를 바쳐야 할 때를 놓치게 되어 속세로 쫓겨나는 벌을 받고 월매의 딸이 된다는 내용이다. ‘효행이 무쌍(無雙)이요, 인자하기가 기린(麒麟)과 같으며, 칠팔 세가 되니 책읽기를 즐겨하고 예의가 반듯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춘향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진술이 두드러진다. (나)는 이 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방자를 보내 춘향을 불러오게 하는 부분으로, 주로

-
- 16) 춘향의 인물 비평을 쓰는 학습활동은 2012년 6월 말 서울의 M고등학교 1학년 3개 반과 J여고 2학년 1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춘향의 성격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네 편의 삽화 (가), (나), (다), (라)를 읽도록 한 후 그 삽화에 나타난 춘향의 형상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춘향에 대한 인물 비평을 쓰도록 하였다. 인물 비평을 쓰도록 하는 발문은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춘향에 대한 인물비평’을 써 봅시다.’라고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비평문이 특정한 관점이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인물의 성격, 특질, 지향 가치, 작중 위상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분량이나 형식 등에서 최소한의 조건만을 주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한 조건은 “1.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쓸 것(1,000자 이상), 2. 글의 제목을 붙일 것, 3. 제시문 (가)~(라)의 내용을 활용할 것, 4. 춘향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것.”의 네 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인물 비평의 방법을 논하기 위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학습자 자료 중에서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한 편의 비평문만을 분석하였다. 인용된 학습자의 비평문은 다른 학습자들의 비평문이 가진 내용 구성상의 양상과 문제점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 논의를 펼치기에 수월하다고 판단하였다.

몽룡과 방자, 춘향과 방자의 대화 장면으로 되어 있다. 방자는 이 도령의 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춘향에게 타박만 당하고 돌아온다. 전말을 들은 이 도령이 방자에게 이리저리하게 하라고 일러주며 재차 방자를 보내지만 춘향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다. (다)는 이 도령이 춘향에게 이별을 고하는 부분으로, 이 도령은 부친의 내직 승차로 인해 춘향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춘향의 집을 찾아와 울면서 이별을 고한다. 춘향은 이 도령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 가까운 곳에 거처를 삼고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이 도령이 혼인하고 등과하면 첩이라도 되겠다고 말하지만, 이 도령은 장가들기 전의 작첩(作妾)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의 전정에 좋지 않다며 불가불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이 말을 들은 춘향은 낮빛이 변하면서 이 도령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라)는 춘향이 형장을 맞는 ‘십장가’ 대목이다. 형장을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맞는 수대로 말을 시작하는 언어유희가 두드러지는데, 변학도에 대한 원망과 비판, 그리고 이 도령에 대한 사랑과 절개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의 삽화들은 춘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텍스트의 분절들로서, 학습독자들은 각각의 삽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춘향의 형상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춘향에 대한 인물 비평을 작성하였다.

춘향이는 (가)를 통해 기이한 인물이고 착하며 여성적인 성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월매의 기이한 꿈 이후에 춘향이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하고 예의가 바르며 효행이 뛰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서는 생각이 깊은 것 같다. 그네 타는 모습에 반한 이몽룡 때문에 춘향이를 데리러 온 방자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춘향이 탓으로 돌리며 왜 하필 이렇게 날 좋은 날 그네를 타러 나온 것이냐며 어이없는 말을 하자, 춘향이 근거있는 말로 맞받아쳐서 방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를 통해서서는 적극적이면서 그때 여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감정에 솔직한 것 같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이몽룡에게 함께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자신은 후에 뒤따라 갈 것이니 자신을 잊지 말고 과거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첩으로라도 데려가 달라며 자신의 할 말을 다하는 모습과 이몽룡이 이별 선언을 하지 물건도 던지

고 치마도 찢으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신세한탄하는 모습이 그때 시대의 이별을 맞이하고 울기만 하는 여자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라)를 통해서도 춘향이의 이몽룡에 대한 지조가 나타난다. 자신의 수청을 들라는 사또를 거절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우리 난궁 이 도령” 하며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J여고 2학년 강○○)

인용된 학습자의 인물비평문에서는 각각의 삽화를 통해 춘향의 성격과 자질을 추출해 내고 있다. (가)를 통해서도 춘향을 ‘기이한 인물이면서, 착하고 여성적인 성격’의 인물이라고 하였는데, 춘향을 기이한 인물이라고 한 것은 (가)에서 월매의 태몽을 염두에 두고 출생의 기이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춘향의 성격을 ‘착하고 여성적’이라고 한 것은 춘향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 내용에 기반하여 추론한 내용일 것이다. (나)를 통해서도 춘향이 ‘생각이 깊은’ 인물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 도령의 명을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온 방자를 면박 주는 장면에서 추론한 것이다. (다)에서는 이별 통고를 받은 춘향의 다소 격한 언행에 주목하여 ‘할 말을 다하는’ 당찬 성격을 지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춘향의 모습이 ‘그때 시대’의 여성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으며, 텍스트 외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에서는 ‘춘향이의 이 도령에 대한 지조’에 주목하였다.

비평문을 보면 이 학습자는 주로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자질에 주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춘향의 성격에 대해서는 ‘착하고 여성적’, ‘생각이 깊은’, ‘감정에 솔직한’ 등의 형용사적 표현을 통해 일반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할 말을 다 한다’와 같은 행동의 특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인물의 자질을 나타내는 명사인 ‘지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학습자가 추론해 낸 결론으로서 춘향의 성격이나 특질은 각각의 제시문에서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 인물의 언행 등을 바탕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어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이 기술되지 않아서 내용 전개상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가 없다. 예컨대, (다)에서 춘향이 이 도령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은 후 치맛자락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별에 처한 젊은 여인의 슬픔과 분노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춘향의 행동과 태도가 이별에 대처하는 일반 여인들의 그것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소 과격해 보이는 춘향의 행동이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춘향의 모습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춘향이라는 인물의 일관된 형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나아가 <춘향전> 전체의 서사구조에 비추어 (다)에 나타난 춘향의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등을 먼저 분석한 후,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추론한 ‘할 말을 다하고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야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에서는 제시문을 학습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점에 주목하였는지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텍스트를 해석하여 인물의 형상을 도출해 가는 단계적인 사고 과정도 확인할 수가 없다.

많은 학습자들은 제시문 (가)~(라)의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춘향의 형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용된 비평문에서도 보이듯, (가)에서 도출해 낸 춘향의 성격, (나)에서 도출해 낸 춘향의 자질, (다)와 (라) 각각의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춘향의 인물 형상들은 서로 연관을 맺지 못하고 별개의 것으로 제시된다. 학습독자는 제시문에 나타난 춘향의 언행을 바탕으로 단순 추론한 조각조각의 결론만을 파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각들이 일관성을 갖고 통합되지는 못하고 있다.

학습자 비평문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의 입장에서 이는 언어적 표현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부족 때문이다. 텍스트 읽기에서부터 인물 형상의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여 그 결과를 글로 조직하는 ‘수용과 생산’의 체험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고, 문학 텍스트의 한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그것을 2차 텍스트로 재생산하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들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문학 교육의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학습자의 문학 텍스트 해석 경험 부족의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상 학습자 비평문을 검토한 결과, 인물 비평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물 비평 활동을 어떻게 단계화, 체계화해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체계화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 물음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학습독자가 인물의 어떤 국면을 비평할 것인가 하는 비평 내용의 대상(초점) 문제, 둘째, 그러한 비평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비평 근거의 문제, 셋째, 비평 내용과 근거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조합하고 구축할 것인가 하는 비평 내용의 조직 문제이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더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인물 비평의 대상 : 인물의 성격

소설 연구자나 비평가들은 어떤 작품의 특정 인물에 대하여 논의할 때, 각자 자신의 관점과 논리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한다. 작품의 서사구조 내에서 인물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고, 인물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그 심리적 기능을 분석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물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데올로기 반영의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하는 등 한 작품에서 특정 대상 인물을 보는 방식과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인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태도는 결국 인물의 성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 편의 소설 작품 속에서 인물은, 어떤 ‘특질(特質)’들의 총체인데, 특질이란 지속적인 속성 또는 자질로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것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모이고 종합되어 관심, 욕망, 윤리적 원칙 등의 복합체, 곧 ‘성격’을 이룬다(최시한, 2010 : 200). 그러므로 소설에서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물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한 인물은 내면과 심리, 사회, 작품 구조 등의 측면에서 여러 성격을 지닐 수 있다(최시한, 2010 : 201).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또는 기능)은 심리적 성격, 사회적 성격(혹은 이데올로기적 기능), 텍스트적 성격으로 포괄적인 구분이 가능하다.¹⁷⁾ 인물의 심리적 성격이란, 말 그대로 인물이 심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

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등장인물이 작가의 심리를 투영하고 또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성격을 가리킨다. 등장인물의 내면의식을 정신분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등장인물의 심리적 성격에 주목한 대표적 예이다.

두 번째로 인물의 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작자의 이데올로기 대변 기능 혹은 독자의 이데올로기 투사 기능과 연관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심리적인 것과는 다른 사회적 이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사회적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논하는 것이 등장인물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한 대표적 예이다. 이때 인물의 사회적 성격은 리얼리즘 소설 논의에서의 ‘인물의 전형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소설이 어떤 사회적 이념을 대변한다는 것은 인물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다는 기의(記意)적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가상적 존재자로서의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의식, 즉 인물의 지향 가치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작중 인물의 지향 가치가 작중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주요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서사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인물의 사회적 성격이 중시될 수 있다.¹⁸⁾

마지막으로 인물의 텍스트적 성격은 등장인물이 텍스트의 의미론적 그물망 속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가 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프로프의 민담 분석이나 그레마스의 기호론적 인물 분석과 같이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물의 텍스트적 기능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논의들이 인물의 텍스트적 성격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예

17) 등장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은 1983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작중 인물에 관한 고찰>이란 세미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등장인물의 기능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데, 첫째 심리적 기능과 둘째 이데올로기적 기능 혹은 사회적 기능과 셋째 텍스트적 기능이다. 작품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강조되거나 약화되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방향은 지금껏 등장인물에 대해 행해졌던 다양한 논의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인물의 ‘기능’은 인물의 ‘성격’ 개념과 동일하다. 등장인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박혜숙(2004 : 25~37)을 참고

18) 인물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하여, 애정소설에 나타난 가치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치 교육에 관해 논구한 황혜진(2006)을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들 수 있다.

이다. 인물의 텍스트적 성격은 사건의 행위자로서 특정 인물이 전체 서사 구조에 대해 갖는 구조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인물의 사회적 성격이나 심리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인물의 성격에 대한 위의 세 가지 분류 항목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 비평의 대상으로서 이 세 가지 성격은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만, 작가나 독자가 기술적으로 인물의 어느 국면을 더 부각시키는가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건 중심 소설의 경우 등장인물은 그 텍스트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내면 심리 묘사나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적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그 인물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3. 인물 비평의 근거—인물정보소의 개념과 분류

비평은 비평 주체가 비평 대상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근거로 삼아 그 대상(텍스트)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비평 행위에는 반드시 비평 대상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있게 마련이며, 인물 비평도 작중 인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정보나 단서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정보나 단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물론 텍스트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

한 편의 소설 텍스트에는 사건의 전개, 배경의 묘사, 서사적 상황의 설명, 인물의 대화와 행동, 인물이나 서술자의 의식의 흐름 등 다양한 내용이 복잡하게 얹혀 있다. 이 중에서 인물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원천을 찾는 것이 작중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 텍스트 내 정보의 원천들을 ‘인물정보소’라 명명할 수 있다.

미케 발이나 롤랑 바르트 같은 구조주의 서사이론가들은 서사 텍스트에서 인물의 효과를 설명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

내의 일정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준거들에 적용시켜 그 인물의 서사적 기능을 예상한다. 서사 텍스트에는 이미 ‘예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독자로 하여금 서사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대상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⁹⁾

이처럼 구조주의 서사론자들은 독자가 인물의 형상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활용할 만한 정보소들이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산재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 인물의 발화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논평, 인물의 발화와 내적 독백 등 그 분절의 사실적 의미 해석만으로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명시적 정보소로 주어지기도 하지만,²⁰⁾ 대개는 서술자의 담론적 진술,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묘사 등 독자가 단서로 삼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하는, 암시적이고 간접적 정보소로 제공된다.

‘정보소’의 개념은 스테인 올슨(S. Olsen, 1978 ; 최상규 역, 1999)의 ‘분절(分節, segment)’ 개념을 원용하여 명명한 것이다. 원래 올슨의 분절은 문학 텍스트 전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다소 범박한 개념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문학 작품으로 간주되는 텍스트에 대하여 독자는 텍스트를 단순한 문장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텍스트에 어떤 종류의 구조를 부여하려 노력

19)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는 독자는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 이미지가 축적되고,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나 인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면서 독자는 그 인물에 대해 알아간다(Mieke Bal, 1997 ; 한용환·강덕화 역, 1999, 156-157).

20) 소설 속에서 인물에 대한 명시적 정보소들은 항상 문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발화인물 또는 서술자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독자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들(여기서는 서술자와 인물을 모두 가리킨다.)이 믿을 만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서술자, 작중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대상 인물에 대하여 서술자가 그 인물 스스로가 공표하는 모습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작품 내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다른 인물들이 상반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채만식의 <치숙>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1인칭 서술자가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은 문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사씨남정기>의 교채란과 같은 악인형 인물의 경우 작품 내에서 그를 보는 다른 인물의 태도가 상반될 수 있다.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W. Booth(1969 : 최상규 역, 1999)를 참고(이상일, 2011 : 475-476에서 재인용).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들의 일정한 패턴에 의해 상호 관련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때 독자의 해석 구조에 기여하는 문학 텍스트의 부분을 ‘분절’이라고 하는데, 문학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과 이해는 텍스트에서 관련된 분절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자가 텍스트의 한 구절을 분절로 분리해 내는 이유는 그 작품의 맥락 안에서 그 구절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독자가 믿고 있는 예술적 의의나 목적, 가치 등을 한정하려는 것이며, 한 분절의 미적 가치나 예술적 의의는 그 분절과 다른 분절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²¹⁾

독자의 텍스트 이해 대상을 특정 작중 인물로 고정한다면 텍스트에서 찾아야 하는 정보는 인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분절이거나 사건의 전개 속에서 그 인물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분절일 것이다. 독자는 그러한 분절을 텍스트에서 추출하여 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²²⁾ 이때 텍스트 내 인물 관련 정보가 담겨 있는 분절이 바로 ‘인물정보소’²³⁾이다. 따라서 인물정보소란 ‘독자가 작중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해석과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는 텍스트의 분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인물정보소’는 그 자체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잠재적 표지이며, 독자의 해석을 거쳐 정보로 구성된다.

인물정보소들은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언어적 단위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하나의 단어나 어구로 존재하기도 하고 한 문장일 수도 있으며, 문장의 연쇄로 이루어진 단락이거나 그보다 더 큰 언어 단위일 수도 있다. 인물의 성격이나 지향 가치를 서술자가 한 문장으로 명기하는 경우

21) ‘분절(segmen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 Olsen(1978 ; 최상규 역, 1999)의 4장을 참고할 것.

22) 리먼-캐넌은 작중 인물이란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암시로부터 독자가 결합한 구성물이라고 하면서, 인물은 독자가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롤랑 바르트는 그 ‘결합’과 ‘재구성’을 ‘이름붙이기(nomination)의 과정’라 명명하며 유사한 입장을 취했고, 채트먼은 이처럼 이름이 붙여지는 것인 인물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Rimmon-Kenan, 1983 ; 최상규 역, 1999 : 68-69).

23) 인물 비평의 대상을 ‘인물의 성격’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면 인물 정보소라는 용어는 ‘인물 성격소’라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

가 있는가 하면, 한 편의 삽화에 다양한 정보의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고려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의 맥락들을 상호 관련지어 검토하고 따져보아야 대상 인물의 성격이나 특질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정보소는 텍스트 상에 다층적인 언어 단위로 존재한다.

인물정보소는, 텍스트에 존재하는 언어 단위뿐만 아니라 인물 형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유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경우일지라도 어떤 인물정보소를 찾아내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습독자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춘향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라고 결론내릴 때 그 텍스트적 근거로, ‘충신불사이균이요, 열녀불경이부라.’라는 춘향의 발화를 들 수도 있고, ‘춘향은 만고의 열녀라’라고 한 서술자의 논평을 들 수도 있다. 또는 옥중 춘향의 내면의식을 검토하여 춘향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²⁴⁾ <춘향전>의 특정 삽화나 전체 서사구조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춘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그 중 춘향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은 그 자체로 춘향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서술자의 신빙성을 따져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수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물의 발화와 행동, 삽화의 의미, 전체 서사구조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은 좀더 복잡하다. 학습독자의 추론 과정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텍스트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질을 담고 있는 인물정보소들은 그 존재의 위상이 일정치 않으므로 먼저 인물정보소들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물 이해를 위해 어떻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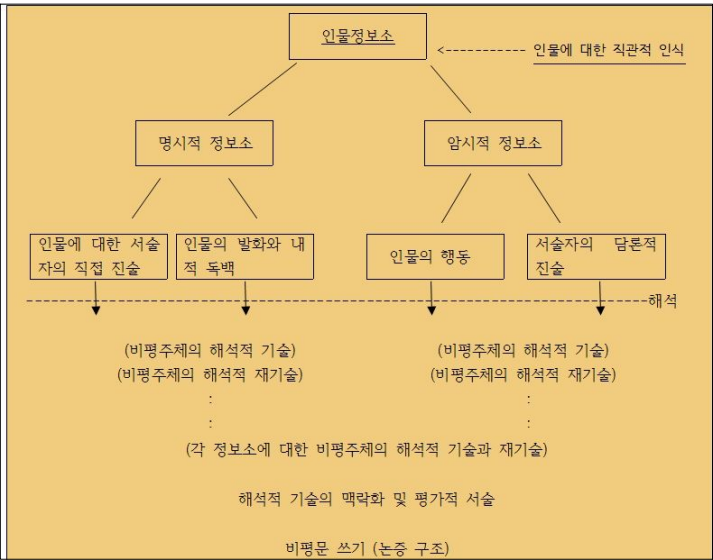
인물정보소는 텍스트 내 언술의 형태이므로 언술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언술 주체는 서술자이다. 텍스트 속에서 서술자의 서술 수준과 태도, 서술 내용의 신

24) 옥중 춘향의 내면세계에 대한 논의는 정충권(2009)를 참고할 수 있음.

빙성, 이야기 속의 참여 범위 등은 서술자의 위상과 시점을 규정하는데, 이는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서술자는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의 외모나 성격을 묘사하는가 하면, 인물의 행동을 독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발화자이므로 서술자의 진술은 독자가 작중 인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술자와 함께 인물정보소가 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 내의 또다른 언술(발화) 주체는 인물이다. 인물은 텍스트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므로, 인물의 발화와 내면의식은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다. 단, 인물의 발화가 비평 대상 인물의 발화인지, 아니면 대상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의 발화인지에 따라, 그리고 인물들 간의 서사적 긴장과 갈등 관계에 따라 독자의 해석과 비평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물 정보소는 그것이 학습자의 인물 이해에 사용되는 직접성 정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명시적 정보소와 암시적 정보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인물 정보소의 분류와 인물 비평

4. 인물 비평의 내용 조직 방식 및 절차

독자가 텍스트에서 인물정보소를 추출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정보소들을 해석하고 종합하는 일련의 활동, 즉 비평 내용을 조직하는 일이다. 이는 ‘인물정보소들을 독자가 어떻게 얼마나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연관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비평 활동의 실천적 현안이다.

독자는 자신이 찾아낸 인물정보소 하나하나에 해석적 기술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소에 대한 검토 결과와 내용적 통일성에 따라 그 정보소들을 어떤 범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한다. 별개의 인물정보소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적 기술이 몇 개의 다른 인물정보소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각기 다른 인물정보소에 대한 상이한 해석적 기술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해석적 기술 속에 포섭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인물정보소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된다. 소설 텍스트의 모든 인물정보소들이 그러한 상위 기술 속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인물정보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성립된다면, 새로운 일련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인물정보소들을 한데 묶어 1차 수준의 기술들을 보다 더 일반적인 상위 기술 속에 포섭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재기술(redescription)의 과정은 소설 텍스트의 모든 인물정보소들이, 다른 모든 인물 정보소들을 포섭하는 어떤 기술에 포섭되어 상호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S. Olsen, 1978 ; 최상규 역, 1999 : 126~127).

이렇듯 문학적 반응의 일환으로서 인물 비평 활동 역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계층 구조를 지닌다.²⁵⁾ ‘인물정보소에 대한 일차적 해석과, 그 일차적 해석 결과의 분류 및 이차적 해석, 이차적 해석 내용의 분류 및 삼차적 해석……’, 인물정보소에 대한 해석과 기술은 만족할 만한 해석이 이루지고 그것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정될 때까지 그 과정은 유사반복을 거듭하게 된다.

25) 모든 문학적 반응은, 짧은 서정시 한 편에 대한 것일지라도, 해석적 기술의 계층 구조를 통하여 기술이 가능하다(S. Olsen, 1978 ; 최상규 역, 1999 : 138).

따라서 인물 비평은 인물정보소에 대한 해석과 재기술을 거듭하는 활동이며, 그 결과로서의 인물 비평문은 대상 인물에 대한 특질을 추출하고 이를 형용사적으로 수렴해가는 귀납적인 논증 구조를 띠게 된다. 텍스트를 읽은 후, ㉠ 대상 인물에 대한 직관적 인식, ㉡ 그 인물에 대한 정보소의 추출, ㉢ 인물정보소에 대한 계층적 해석 활동, ㉣ 이상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증적 내용 구성, 이상 네 단계의 절차로 학습 독자의 인물 비평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²⁶⁾ 결국 인물 비평은 텍스트를 읽고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질 등을 텍스트 내의 인물정보소를 근거로 하여 해석함으로써 독자의 인물 이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 활동은 인물정보소에 대한 해석의 결과들을 다시 상위 기술로 포섭해 가는 재기술의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인물 비평문이 귀납적인 논증 구조를 띤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인물 비평문이 귀납적 논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물 비평 활동의 전 구조가 귀납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인물정보소를 찾아 이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대상 인물의 형상을 구조화해 가는 인물 비평의 과정과 그 결과로 얻은 인물 비평문은 비평 주체로서 학습 독자의 비평 형식이나 교수학습 과정, 그리고 비평 결과로서의 인물 비평문은 분명 귀납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한편의 비평문을 얻기까지 독자가 거치게 되는 사고 활동의 흐름이 반드시 귀납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과 사고 활동에 대한 보다 치밀한 탐색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6) 텍스트에 대한 학습독자의 직관적 인식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탐색하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국어교육에서 비평 활동의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성진(2004)에서는 비평 활동의 일반적인 지배소를 ‘직관의 표현’, ‘논리적 설명’, ‘이념의 실천에 대한 지향’으로 정리하여 그에 대응하는 비평 활동의 교육 내용을 ‘인상 기술 중심 활동’, ‘설명 중심 활동’, ‘사회·역사적 가치 탐구 중심 활동’으로 체계화하였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고등학교 학습 독자가 고전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수행으로서 인물 비평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인물에 대한 교육적 연구와 실천이 인물 형상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인물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아는’ 인물 이해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대상 인물에 대하여 인식·해석·평가하는 이해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학습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습독자가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어떤 교육적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수행의 문제를 중시하여, 인물 이해를 위한 교육적 수행으로서 인물 비평을 제안하였다.

인물 비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춘향 비평’을 분석하고, 인물 비평의 대상, 근거,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논하였다. 소설 교육에서 인물 이해의 대상은 인물의 성격이 주가 되는데, 인물의 성격은 작품 내외적인 측면에서 텍스트적 성격, 사회적 성격, 심리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 비평은 대상 인물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과정과 결과를 텍스트 내 연술을 근거로 삼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 내 정보의 원천으로서 인물 정보소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 인물정보소는 소설 텍스트 내 연술 주제 및 정보소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명시적 정보소와 암시적 정보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 비평 교육은 학습독자가 인물정보소를 찾아 해석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실천되는데, ‘대상 인물에 대한 직관적 인식-대상 인물의 인물정보소 추출-인물정보소에 대한 해석-이해 결과의 논증적 구성’의 과정으로 절차화할 수 있다.

소설 교육에서 인물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 비중 있게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학습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의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재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문학 교육의 관심사

있던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주목하면서, 텍스트 속에 다양한 국면을 가진 작중 인물에 대한 의미론적 수용과 변형 과정으로 인물 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수와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 6. 30. 투고되었으며, 2012.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2. 8. 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2002 a),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제10집, 7~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2002 b), “국어교육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선청어문』 30호, 29~5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5~29, 국어교육학회.
- 김성진(2004), “비평 활동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정우(2002), “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201~234, 국어교육학회.
- 권영택(1995),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 박혜숙(2004),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출판부.
- 서유경(1997), “고전 문학의 인물 형상화와 향유방식 연구 : 임경업에 관한 傳, 傳說, 小說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선주원(2004), “작중 인물 이해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언어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67집, 417~424.
- 양정실(2006), “해석텍스트 쓰기의 서사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이상일(2011), “준향의 신본 정체성을 통해 본 이몽룡의 인물 형상”, 『고전문학과교육』 22, 469~49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이은주(2010), “우화소설의 인물 교육 연구 : 인물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4), 『소설의 이해와 분석』, 연세대학교출판부.
- 임경순(1995),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 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전한성(2011), “자전적 서사의 형상화 과정을 통한 서사 창작 교육 방향 연구—『백범일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집, 417~424,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충권(2009), “獄中 春杳의 內面”, 『관소리연구』 제27집, 387~412, 관소리학회.
- 조남현(1982), 『소설원론』, 고려원.
- 조하연(2010), “문학 감상 교육 연구—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최시한(2010),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 홍성암(1999), “소설의 인물”, 『현대 소설의 이해』, 124~125, 문학사상사.
- 홍지연(2005),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内田樹(2002), 寝ながら學べる構造主義, 이경덕 역(2010),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Bal Mieke(1997), *Narratology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translated and revised by Christine Van Boheemen) ; 한용환 · 강덕화 역(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Bartes R.(1973), *Le Plaisir du Texte*, 김희영 역(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Booth W.(1969), *The Rhetoric of Fiction*, 최상규 역(1999),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Brooks&Warren(1960), *The Scope of Fiction*, 안동림 역(1997), 『소설의 분석』, 현암사.

Chatman S.(1978), *Story and Discourse*, 한용환 역(2003),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Olsen S.(1978),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1999), 『문학 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Rimmon-Kenan Shlomith(1983), *Narrative Fiction :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1999),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Zima, P.(1996), *Fischer Lexikon Literatur*, 김태환 편역(2000), 『비판적 문학이론과 미학』, 문학과 지성사.

<초록>

고전소설의 인물 비평 교육 연구 서설

-인물 비평의 개념, 위상, 방법-

이상일

이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고등학교 학습 독자가 고전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수행으로서 인물 비평의 방법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인물에 대한 교육적 연구와 실천이 인물 형상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학습자들이 소설 속 인물을 인식·해석·평가하는 비평 활동에 주목하였다.

인물 비평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춘향 비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 비평의 대상, 근거, 방식에 대하여 논하였다. 소설 교육에서 인물 이해의 대상은 인물의 성격이 주가 되는데, 인물의 성격은 작품 내외적인 측면에서 텍스트적 성격, 사회적 성격, 심리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 비평은 대상 인물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과정과 결과를 텍스트 내 언술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텍스트 내 정보의 원천으로서 인물정보소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 인물정보소는 소설 텍스트 내 언술 주체 및 정보소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명시적 정보소와 암시적 정보소로 나눌 수 있다. 인물 비평 교육은 학습독자가 인물정보소를 찾아 해석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실천되며, ‘대상 인물에 대한 직관적 인식-대상 인물의 인물정보소 추출-인물정보소에 대한 해석-이해 결과의 논증적 구성’의 과정으로 절차화할 수 있다.

소설 교육에서 인물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 비중 있게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학습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의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문학 교육의 관심사였던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주목하면서, 텍스트 속에 다양한 국면을 가진 작중 인물에 대한 의미론적 수용과 변형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는 실천적 교육 절차를 구안함으로써 인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소설 교육, 고전소설, 인물 이해, 인물 비평, 인물정보소, 해석, 평가

<Abstract>

An Introduction to Character Criticism Education in Korean Classical Novels

Lee, Sang-il

This thesis suggests some ideas on the understanding the characters in Korean classical novels. The main idea has to do with character criticism in novel education

Character criticism is the educational understanding activity that the reader such as high school student read the fiction—such as Chunhyang-jeon, Heungbu-jeon, etc.— and get the image of the characters, to write criticism. Character criticism is a kind of literary criticism.

The Process of Character Criticism is as in the following. In First Reader have to find character information source in the text. Character information sourc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xplicit information source and implied information source. The next stage, the reader interpret character information source, and estimate the character, to describe the outcome of the interpretation. This outcome, the character criticism follow the demonstration structure.

This thesis suggest the new educational way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fictions. This is relevant in this regard.

[Key words] Novel Education, Korean Classical Novel, Understanding the Characters, Character Criticism, Character Information Source, Interpretation, Estimate the Character